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의 주연 박해일, 변요한, 김항기, 김성규, 김성균, 옥택연(왼쪽부터)이 28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며 웃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김한민 감독 “거북선과 학익진, 기대해도 좋아”

명랑해전의 5년 전 한산대첩 그려 제작비 300억 대...전투신만 51분 박해일 “젊은 패기의 이순신 연기”

포박 8년 만이다. 2014년 1761만 관객을 동원한 역대 최고 흥행작 ‘명량’의 후속편 ‘한산: 용의 출현’이 다음 달 27일 닷을 올리고 흥행대전에 출전한다. 영화는 전편의 명랑해전에 앞서 5년 전인 15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필사의 전략과 패기로 나아간 한산대첩을 그린다. 박해일이 전편의 최민식이 연기한 이순신으로 새롭게 나선다. ‘명량’이 담아낸 거대한 스케일의 해전이 1761만 관객의 지지를 얻은 만큼 ‘한산: 용의 출현’(한산, 제작 빅스톤픽처스)은 올해 여름 시즌 기대작으로 꼽힌다.

연출자 김한민 감독은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제작보고회를 열어 “그 어떤 영화를 개봉할

때보다도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용기와 치유, 연대의식, 특히 자긍심을 느껴 이순신 장군과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 “학익진 전개, 무려 51분”

김 감독은 ‘명량’과 ‘한산’에 이어 내년 개봉 예정인 ‘노랑’까지 제작을 끝내 ‘이순신 3부작’을 완성했다. 그는 “사실 처음에는 ‘최종병기 활’, ‘봉오동 전투’(제작), ‘명량’으로 역사 3부작을 만들고 싶었다”며 “‘최종병기 활’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명량’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 이야기는 단 한 편으로 끝낼 수 없겠다. 적어도 3부작은 돼야겠다고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300억 원의 거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엔 무려 51분 분량의 초대형 해상 전투 장면이 담겼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으로 펼쳐낸 ‘학익진’ 전술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벌써부터 나온다.

또 전편에서 짧게 등장해 후속 이야기를 예고했던 거북선도 전투에 본격 나선다. “영화의 부제 ‘용의 출현’은 거북선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김 감독은 강조했다. 그만큼 거북선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셈이다. 그는 “거북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총망라해 나름대로 가장 설득력 있게 구현하려 했다”면서 “(거북선이)어떤 당위성을 가졌는지, 전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흥미진진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박해일 “최민식의 이순신과 달라”

‘극락도 살인사건’, ‘최종병기 활’에 이어 또 한 번 김 감독과 손잡고 이순신을 연기한 박해일은 “김 감독이 5000만 국민이 알고 있는 위인(역을)을 재안했을 때 정말 부담이 컸다. 시나리오를 꼼꼼히 읽고, 감독님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명량’의 최민식과 ‘노랑’의 김윤석 사이에서 가장 젊은 이순신의 모습을 그려내게 된 그는 “젊은 기운이 넘치는 이순신이니만큼 젊은 패기로 팽팽한 전투 자체에 집중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객의 기억에 강하게 남은 최민식의 이순신이 “용맹스러운 명장”이었다면 박해일은 “전략을 짜는 지혜로운 지장과 백성을 지키는 덕장”이라고 소개했다. “어릴 적부터 유학을 익히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다 무인의 길로 가신 분이죠. 내면 군자의 모습과 외면의 울긋불긋은 무인의 모습, 양쪽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전편에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이라는 ‘명대사’를 남긴 최민식은 후배를 농담으로 격려했다. 후배는 큰 용기를 얻었다. 박해일은 “선배님이 썩 웃으시며 ‘고생 좀 해봐라’ 하시더라. 영웅을 연기한다는 부담과 애잔함, 고생스러운 속마음을 느껴보라는 뜻으로 들렸다”며 웃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연예뉴스 HOT 5

에스파, 美 ‘굿모닝 아메리카’ 여름 콘서트 출연



걸그룹 에스파가 미국 ABC 인기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의 여름콘서트 시리즈에 출연한다. 2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는 7월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립시 플레이필드에서 열리는 ‘굿모닝 아메리카-서머 콘서트 시리즈 2022’에 케이팝 걸그룹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오프닝을 장식한다. 행사는 ‘굿모닝 아메리카’가 여름마다 주최하는 야외 콘서트로, 2년간 감염병 확산 사태 여파로 온·오프라인 형태로 진행해왔다. 에스파는 이날 히트곡 ‘넥스트 레벨’, ‘새비지’ 등을 공개한다.

김완선, 울산 국제아트페어 특별전 작품 전시



가수 김완선이 다음 달 1~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특별전 ‘하어 아이 엠’(Here I am)을 연다. 소속사 KWS unflower는 28일 “울산 국제아트페어에 공식 초청받아 10여 점을 전시한다”며 “이날 행사에서 김완선은 전시장을 찾은 팬들을 위해 사인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완선은 하와이대에서 디지털 아트를 공부한 후 미술 작품을 제작해왔다. 1986년 ‘오늘밤’으로 데뷔한 김완선은 꾸준히 활동하며 ‘디바’로 사랑받고 있다.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193개국 선포매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193개국에 선포매됐다. 28일 배급사 CJ ENM에 따르면 ‘헤어질 결심’은 산 정상에서 추락한 중년 남성의 번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박해일)이 사망자의 아내(탕웨이)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29일 한국과 프랑스에서 동시 개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3일 인도네시아, 14일 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 21일 홍콩·마카오, 22일 대만에서 개봉한다. 태국과 체코에서는 8월, 영국과 북미 지역에서는 10월 개봉한다.

앤 마리·벤슨 분 등 해외 스타들 10월 내한공연

영국 싱어송라이터 앤 마리 등 해외 인기 스타들이 10월 내한공연을 펼친다. 공연기획사 프라이빗커브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싱어송라이터 톤즈 앤 아이, 벤슨 분 등이 10월 8~10일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제4회 슬로우 라이브 슬로우 라이브 2022’ 무대에 오른다. 이번 음악 페스티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첫날에는 미국 밴드 레이니가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로 나선다.

솔지,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여수편 나선다



가수 솔지가 국내 여러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캠페인 음악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여수 편이 주인공이 됐다. 한국관광공사 주최하는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는 국내 지역의 전통과 매력을 음악으로 담아 선보이는 캠페인이다. 솔지는 동료 가수 이현이 프로듀싱한 곡 ‘파이팅’(Fight·여수)을 부른다. 여수의 넓은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노래에서 솔지는 ‘운명’이 두렵진 않아 마지막 내 숨 끝까지 아무것도 남을 게 없을 때까지라는 가사를 소화하며 특유의 파워풀한 고음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로큰롤 제왕 ‘엘비스’의 스크린 부활...‘제2의 보헤미안’ 될까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

오스틴 버틀러 주연...7월13일 개봉 루이먼 감독 “젊은 관객도 열광할것”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활한다.

1953년 데뷔와 동시에 시대를 앞선 파격적 퍼포먼스로 20여년 동안 활약하며 팝 음악의 전설로 남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스크린에서 무대를 되살려낸다. 7월 13일 개봉하는 영화 ‘엘비스’이다.

영화는 트락을 운전하며 가수의 꿈을 키운 청년 무명가수 엘비스가 로큰롤을 기반으로 스타덤에 오르는 과정에서부터 음악적·인간적 희의에 빠져들며 혼돈을 겪어

가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다. 타이틀물은 해리 스타일스, 마일스 텔러 등 쟁쟁한 배우들을 제친 신예 오스틴 버틀러가 맡았다. 1991년생인 오스틴은 오디션에서 팝의 고전인 ‘언체인드 멜로디’(Unchained Melody)를 불러 합격했다. 2년의 준비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엘비스를 빼닮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엘비스의 딸인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그의 노래를 “아빠가 부른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개봉을 앞두고 28일 한국 취재진과 만난 오스틴 버틀러는 엘비스를 흉내 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았으면서 그의 쓸쓸한 내면에 깊이 파고들려 “슈퍼 휴먼 같이 보였던 엘비스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며” 다

가졌다고 밝혔다.

영화는 ‘위대한 개츠비’와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만든 배즈 루어먼 감독이 연출해 기대를 더한다. 감독은 전설적인 아티스트의 삶을 그리는 만큼 뮤지컬영화 ‘물방울’로 재능을 발휘한 바 있다.

“엘비스가 생긴 월드투어를 통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팬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감독은 “영화를 통해 그의 투어를 대신하고 있다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케이(K)팝 스타의 위상을 언급하며 “1950~70년대 음악을 잘 모르는 젊은 관객이라도 케이팝 아이들에게 열광하듯 세계 최초의 아이돌”인 엘비스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영화 ‘엘비스’ 한 장면

제작현장에서도 한국 음악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영감을 얻기도 했다. 그는 “영화는 아티스트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매니지먼트가 아티스트의 정신적 건강과 영혼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면서 “한국 음악산업 종사자들과 대화에서도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예능이 영화로, 영화는 드라마로...콘텐츠의 변신은 무죄

예능 ‘무해하게’→영화 ‘보통의 용기’ 영화 ‘인민을 위해’는 드라마 재편집

예능프로그램이 영화로, 영화가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최근 하나의 콘텐츠를 방송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극장 등 각종 플랫폼에 맞게 변형해 선보이는 ‘포맷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와 대중의 접점을 늘려 다양한 수익 창구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30일 개봉하는 영화 ‘보통의 용기’는 지

난해 10월 KBS 2TV가 방송한 10부작 예능프로그램 ‘오늘부터 무해하게’를 토대로 한다. 배우 공효진과 이찬희·전혜진 부부가 충남 홍성군 죽도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탄소 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90분 남짓 영상으로 압축했다. 연출을 맡은 구민정 감독이 “환경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하기에 다큐멘터리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영화 제작에 착수했다. 구 감독은 28일 “기존 예능 연출 방식과는 다르게 출연자들의 심경 변화와 고민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부기나이트’, ‘여우동: 주인 없는 꽃’ 등은 6~9부작 드라마로 재편집돼 OTT 웨이브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미 개봉한 상업영화를 드라마로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의 장철수 감독 등 제작진은 “원작과는 다른 전개와 결말을 소개하고 싶다”며 드라마 편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정민 웨이브 국내 편성사업부 책임은 28일 “영화에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버려지는 장면이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침체기를 겪은 영화시장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일부터 이미 서비스한 콘텐츠가 뚜렷한 시청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웨이브는 앞으로도 IP(지식재산권) 확장의 의미로 관련 시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방송사도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KBS는 지난해 2TV ‘드라마 스페셜’의 ‘희수’, ‘F20’, ‘사이렌’ 등을 극장에 내걸었다. ‘사이렌’이 스톱홀름 필름&TV 페스티벌에서 베스트 피쳐 필름 부문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에도 일부 단막극을 채널과 극장에서 동시 공개하기로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